

## 제 2 장

# IMD의 한국경제 국가경쟁력평가

- ▶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왜 추락하는가
- ▶ 국가경쟁력에 자연법칙이 있다
- ▶ 강점을 키우고 장점을 살리자
- ▶ 단점은 덮어두고 약점은 쓰다듬자
- ▶ WEF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 ▶ 지속적인 성장으로 떡부터 키우자


#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왜 추락하는가

- **산업사회는 너무 느렸다. 그래서 늦게 출발한 우리도 공업화에 성공했다.**
  - 눈썰미가 있고 손놀림이 빠른 우리 국민은 미국과 일본을 열심히 배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가난에서 벗어났다.
  
- **그러나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너무 빨랐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었다.**
  - 정보기술이 세계의 주요 금융시장을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얻어질 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어떻게 헤지 되는지를 모르면서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환율도 금리도 주가도 행정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 더 큰 공장을 가지면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산업사회의 믿음으로 정부도 기업도 팽창의 외길만 가고 있었다.
  - 실물투자를 위한 차입규모가 컸던 아시아의 기업과 정부는 실시간대로 글로벌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헤지펀드의 무차별한 자금회수 러시에 무릎을 꿇고 외환위기를 맞았다.
  
- **시장경제를 공부하지 않고는 결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아픈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을 즐기차게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실천해 왔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에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다.**
  
-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의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발걸음만 서두르고 있으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실수는 반복되고 있다.**
  -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키워진다. 경쟁을 피할수록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경쟁에서 승리할 수 때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은 없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의 경쟁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정부가 은행을 대신해서 여신관리를 해주고 돈을 벌여줄 수도 없다. 민간의 치열한 경쟁만이 강한 기업을 만들고 효율적인 은행을 만든다. 정부도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국제 경쟁을 한다.
  - 우리 나라의 국제화수준(40위)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시장기능에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이 국내기업에게 경쟁 압력을 주고 또한 배움의 기회도 제공한다. 외국상품의 수입 자유화는 비효율적인 국내기업을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만족과 국민의 실질소득을 모두 증가시킨다.
  - 금융환경(41위)이 열악하여 반듯한 은행 하나 없고, 기업경영(42위)이 불투명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정부의 관료주의적인 개입과 권한강화를 위한 금융장악과 기업 길들이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권위주의 때문이다.

# 한국경제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8개부문별 변화추이


| 세계 47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       |       |       |       |
|------------------------|-------|-------|-------|-------|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 26                     | 27    | 30    | 35    | 38    |

## 1. 국내경제 활력



| DOMESTIC ECONOMY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7                | 4    | 13   | 34   | 43   |

## 2. 국제화수준



| INTERNATIONALIZATION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40                   | 43   | 45   | 46   | 40   |

## 3. 정부행정




| GOVERNMENT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18         | 33   | 32   | 34   | 37   |

## 4. 금융환경




| FINANCE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37위     | 40   | 43   | 45   | 41   |

## 5. 경제기반시설




| INFRASTRUCTURE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35             | 34   | 34   | 31   | 30   |

## 6. 기업경영




| MANAGEMENT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27         | 28   | 26   | 34   | 42   |

## 7. 과학기술



| SCIENCE & TECHNOLOGY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24                   | 25   | 22   | 28   | 28   |

## 8. 인적자원



| PEOPLE |      |      |      |      |
|--------|------|------|------|------|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21     | 21   | 22   | 22   | 31   |

# 국가경쟁력에 자연법칙이 있다

## (1) 국내경제활력(Domestic Economy)은 치열한 국내시장의 경쟁에서 나온다.

- 단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생산성 증가에서 온다. (경제 효율부터 높여야 한다)
-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는 자본형성(투자)에서 이루어진다. (성장은 투자의 결과다)
- 수년간의 경제성장이 쌓여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풍요가 생겨난다. (떡부터 키워야 한다)
- 시장의 힘에 지배되는 경쟁의 치열함이 한나라 경제의 활력을 키운다.

## (2) 국제화수준(Internationalization)이 생활수준을 높인다.

- 무역장벽을 없애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면 국제무역에서 성공한다. (힘은 안에서 다지고 돈은 밖에서 번다)
-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개방되면 한나라의 경제적 성과도 향상된다.
- 국제투자는 경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을 세계 전체적으로 높인다. (글로벌 경영은 열린 경쟁이 필수조건이다)
- 수출주도 경쟁력 향상은 성장주도 국내경제와 상승적으로 연계되어있다. (밖에서 돈 벌어야 안에서 잘산다)

## (3) 정부행정(Government)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경제정책을 적응시켜야 한다.

-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은 경쟁을 촉발하는 일이 아니라면 최소화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직면하는 외부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정책과 사회환경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 (4) 금융환경(Finance)이 잘 발달되어 국제금융시장과 통합되면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도 향상된다.

- 금융은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이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 (5) 경제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정보기술의 활용과 효율적인 환경보호에 부합해야 한다.

-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잘 정비된 경제기반시설이 경제활동에 활력을 준다.

## (6) 기업경영(Management)은 기업활동을 통합하는 데도, 차별화 하는 데도 적절한 경영기법을 요구한다.

- 상품의 가격대비 품질수준이 보여주듯이 경쟁력은 한나라의 경영능력 수준을 반영한다. (일 잘해야 잘산다)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경영은 향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 치열한 경쟁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포함한 경제활동의 효율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자질이다.
- 혁신 기업가 정신은 창업초기의 경제활동에 매우 필요하다. (기업가의 모험의지가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

## (7)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투자가 성장잠재력을 창출한다.

- 기업경쟁력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향상된다. (벌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벌 수 있다)
- 공공부문의 국방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나라가 민간부문의 비국방 연구개발 투자수준도 높인다.
- 기초 과학 연구와 신 지식개발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발전을 성숙시키는데 중요하다.

## (8) 인적자원(People) 개발로 기술노동력이 풍부해지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 근로 인력의 적극적인 태도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수준이 국가수준이다)
- 경쟁력이 향상되면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잘 벌어야 잘 산다)

## 한국경제의 IMD평가 8개부문/46개분야 세계경쟁력순위

| 8 개 부 문        | 46 개 분 야        | 세계순위 |
|----------------|-----------------|------|
| 1. 국내경제활력(43위) | 1) 변화적응 능력      | 16   |
|                | 2) 저축           | 18   |
|                | 3) 산업부문 성과      | 23   |
|                | 4) 생계비          | 34   |
|                | 5) 최종소비         | 41   |
|                | 6) 부가가치 생산      | 44   |
|                | 7) 투자           | 46   |
| 2. 국제화수준(40위)  | 1) 경상수지         | 10   |
|                | 2) 제품 및 용역 수출   | 21   |
|                | 3) 자산증식 투자      | 29   |
|                | 4) 해외 직접투자      | 30   |
|                | 5) 환율           | 34   |
|                | 6) 제품 및 용역 수입   | 37   |
|                | 7) 경제개방성        | 42   |
|                | 8) 국내시장 보호      | 45   |
| 3. 정부행정(37위)   | 1) 정부지출         | 14   |
|                | 2) 국가부채         | 15   |
|                | 3) 재정정책         | 18   |
|                | 4) 법 정의 및 안전    | 38   |
|                | 5) 정부행정 효율성     | 43   |
|                | 6) 정부 시장개입      | 46   |
| 4. 금융환경(41위)   | 1) 자본비용         | 37   |
|                | 2) 은행부문 효율성     | 38   |
|                | 3) 자본 가용성       | 42   |
|                | 4) 주식시장 활력      | 45   |
| 5. 경제기반시설(30위) | 1) 환경 관리        | 22   |
|                | 2) 정보기반시설       | 25   |
|                | 3) 사회기반시설       | 37   |
|                | 4) 에너지 자급능력     | 42   |
| 6. 기업경영(42위)   | 1) 노동비용         | 8    |
|                | 2) 생산성          | 32   |
|                | 3) 기업문화         | 43   |
|                | 4) 기업경영 효율      | 46   |
|                | 5) 기업활동 성과      | 48   |
| 7. 과학기술(28위)   | 1) 연구개발비 지출     | 9    |
|                | 2) 지적재산 보호      | 24   |
|                | 3) 과학기술 여건      | 26   |
|                | 4) 연구개발 인력      | 36   |
|                | 5) 기술경영         | 46   |
| 8. 인적자원(31위)   | 1) 고용           | 11   |
|                | 2) 실업           | 11   |
|                | 3) 인구구조 특성      | 10   |
|                | 4) 삶의 질         | 34   |
|                | 5) 근로태도 및 사회가치관 | 34   |
|                | 6) 교육체계 및 구조    | 37   |
|                | 7) 경제인구 특성      | 40   |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 강점을 키우고 장점을 살리자

- 우리는 많은 시련을 20세기에 겪었지만 나라를 찾고 경제를 일으켰고 자유를 지켰다. 20세기에 우리는 성공했다. 그것은 비록 반쪽의 성공이었지만 가능성은 완전히 확인되었다.
- 21세기에도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이제는 완전한 성공이어야 한다. 인류 앞에 자랑스런 민족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일등국가가 되어야 한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와 열린 경제에 맞는 국가경영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키우고 한국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 첫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국」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경청하면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우리는 세계우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청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우리의 능력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든 자유우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든, 인종적 장애와 정치적 벽을 넘어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IMF를 겪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6위이다. 우리가 변명하고 예외를 구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오로지 정치적인 거래만 있을 뿐이다.
- 둘째, 대내적으로는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을 정부가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관료는 결코 시장 참여자보다 현명할 수 없고 더 많이 알 수 없다.
  - 관료 스스로 만든 규제와 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보독점이 물론 시장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자끼리만 아는 행동준칙이다.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계약은 아니다.
  -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시장경제의 근본특성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법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 셋째, 가두어 놓고 다스리는 통치나 지배는 더 이상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따라서 20세기 정부주도 국가개입시대의 제도와 틀은 필요 없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즉시 버려야 한다.
  - 20세기 산업사회의 통치규제로 21세기 지식사회의 국가경영을 해 낼 수는 없다. 이러한 개방성의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적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는 멤버십이어야 한다.

##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점

| 8개부문      | IMD 평가지표 이름(단위)                                     | 한국경제<br>통계치 | 47개국중<br>국가순위 | 47개국<br>평균값 |
|-----------|---|-------------|---------------|-------------|
| 1. 국내경제활력 | 1.17 정부 최종소비지출의 실질 증가율 ('98)(실질가치 증가율 %)            | 7.64        | 6             | 1.94        |
|           | 1.20 제조업공업생산 증가율 ('92-'96)(평균실질증가율 %)               | 4.70        | 6             | -0.58       |
|           | 1.29 생산시설 해외이전이 나라의 장래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서베이)         | 5.76        | 6             | 4.66        |
| 2. 국제화수준  | 2.06 경상수지 흑자('98)(GDP비중 %)                          | 12.47       | 2             | 0.30        |
|           | 2.05 경상수지 흑자('98)(10억달러)                            | 379         | 4             | -0.2        |
|           | 2.12 민간서비스 용역수출 신장율 ('97)(미국달러가치 증가율 %)             | 12.32       | 5             | 3.32        |
| 3. 정부행정   | 3.09 정부고용 비중 ('96)<br>(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적은정도)         | 4.5         | 5             | 15.8        |
|           | 3.10 일반정부지출('97)<br>(GDP비중 %)(적은정도)                 | 18.8        | 6             | 39.9        |
| 4. 금융환경   | 4.20 이자율 스프레드('98)<br>(대출금리-예금금리)(적은정도)             | 1.10        | 2             | 4.52        |
|           | 4.26 신용카드 발급 수('98)(인구천명당)                          | 662.9       | 6             |             |
| 5. 경제기반시설 | 뚜렷한 강점 없음   |             |               |             |
| 6. 기업경영   | 6.14 제조업분야 단위노동비용 증가율('98)<br>(전년대비 증가율 %)(적은정도)    | -8.5        | 1             | 4.99        |
| 7. 과학기술   | 7.03 총연구개발비 지출 비중('97)<br>(GDP비중 %)                 | 2.79        | 3             | 1.29        |
|           | 7.01 총연구개발비 지출 ('97)(억달러)                           | 135.2       | 6             |             |
|           | 7.04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지출('97)(억달러)                        | 98.9        | 6             |             |
|           | 7.22 내국인에 대한 특허인가 수 ('95-'96)(년평균 건수)               | 7,448       | 6             |             |
|           | 7.23 내국인에 대한 특허인가 수 증가율 ('92-'96)(년평균 증가율 %)        | 23.56       | 6             | 5.12        |
| 8. 인적자원   | 8.04 15세미만 또는 64세이상 부양인구 비중 ('97)(경제활동인구대비 %)(적은정도) | 4.03        | 2             |             |
|           | 8.23 고등학교 등록 인구비중('95)<br>(동년배중 학업전업인구 비중 %)        | 96.0        | 2             | 76.0        |
|           | 8.44 근면, 혁신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이<br>경쟁력에 미치는 정도(서베이)        | 7.92        | 4             | 6.42        |
|           | 8.24 대학교 등록 인구비중('96)<br>(17-34세 동년배중 학업전업 인구 비중 %) | 13.7        | 6             | 11.0        |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 단점은 덮어두고 약점은 쓰다듬자

-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내일의 성공은 오늘의 방향 설정과 내일을 위한 오늘의 희생에 달려있다.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앉아서 미래를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뛰면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 우리의 21세기 국가경영 경쟁력 강화전략은 명백하다.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이 원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멤버십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변하지 않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의 것을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변하면 단점은 덮어진다. 함께 변하면 약점도 쓰다듬어진다.
-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로 고민할 수 없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 (1)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될 것이며 오래 일하게 되고, 따라서 출산률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50년에는 지구의 인구수가 현재의 58억 명에서 90억 내지 110억 명으로 늘 것이다. 아시아에만 60억의 인구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난한 지역일수록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 거대한 도시가 자꾸 늘어갈 것이며,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피해 좀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난민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교민을 포함한 이주자들을 위해 함께 나눌 의지와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 (2) 지구 오염의 속도가 우리가 대응하는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 호수와 삼림이 산성비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기후와 생태계의 불가촉성을 높이고 있다.
  - (3) 생물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유전인자, 생물 종, 군집 그리고 생태계는 그 다양성과 다변성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전물질에 의해 형성된다. 미래의 자원인 생물자원이 고갈되면 우리의 다음세대가 받게 될 생존위험은 더 없이 높아진다.
  - (4)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내용은 다양한 자산이 다양한 화폐단위로 다양으로 순식간에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의 이동이 시장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 (5)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대량실업이 보편화된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인간의 학습속도를 능가하고 기업의 적응 변화가 직원의 교육훈련보다는 새로운 능력의 채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종신고용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경쟁력표 10]

##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약점

| 8개부문      | IMD 평가지표 이름(단위)                                  | 한국경제<br>통계치 | 47개국중<br>국가순위 | 47개국<br>평균값 |
|-----------|--|-------------|---------------|-------------|
| 1. 국내경제활력 | 1.11 국내총투자 증가율('98)<br>(실질가치, 연간%)               | - 36.97     | 46            | 1.32        |
| 2. 국제화구준  | 2.44 국민문화 및 국제화 의식<br>(서베이 1-7점)                 | 4.13        | 47            | 7.18        |
|           | 2.33 국내산업 보호규제가 제품과 용역의<br>수입제한 정도(서베이 1-7점)     | 3.83        | 47            | 6.98        |
| 3. 정부행정   | 3.30 정부의 가격통제가 제품가격 결정영향<br>정도(서베이 1-7점)         | 3.91        | 47            | 7.40        |
|           | 3.37 제조물 또는 용역책임법이 기업활동을<br>과잉규제(서베이 1-7점)       | 4.68        | 47            | 6.68        |
|           | 3.11 국방지출의 과다가 경쟁력지원투자를<br>제약하는 정도(서베이 1-7점)     | 3.09        | 45            | 6.77        |
| 4. 금융환경   | 4.15 기업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한 정도<br>(서베이 1-7점)          | 2.86        | 47            | 6.62        |
|           | 4.23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정확성과 투명성<br>결여(서베이 1-7점)         | 3.39        | 44            | 6.18        |
|           | 4.24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미흡<br>(서베이 1-7점)                 | 3.14        | 46            | 5.91        |
| 5. 경제기반시설 | 5.17 새로운 정보중심기술의 도입이 비즈니스<br>요구에 미흡(서베이 1-7점)    | 4.39        | 46            | 6.75        |
| 6. 기업경영   | 6.35 기업경영관리자들의 혁신기업가정신<br>(서베이 1-7점)             | 3.96        | 46            | 5.90        |
|           | 6.21 기업주 또는 기업경영진이 일반대중에<br>의해 신뢰받는 정도(서베이 1-7점) | 3.98        | 45            | 6.19        |
|           | 6.26 국내경영진이 국제업무경영진보다<br>능력이 뒤지는 정도(서베이 1-7점)    | 4.06        | 46            | 6.32        |
|           | 6.28 노사관계가 대립적임(서베이 1-7점)                        | 3.61        | 46            | 6.16        |
|           | 6.27 주주의 투자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진의<br>노력미흡(서베이 1-7점)      | 3.20        | 44            | 5.66        |
|           | 6.22 기업이사회가 기업관련 불이익 배제<br>노력 미흡(서베이 1-7점)       | 3.61        | 45            | 5.81        |
| 7. 과학기술   | 7.15 기술개발과 응용시 법적환경의 지원을<br>잘 받는 정도(서베이 1-7점)    | 4.17        | 47            |             |
| 8. 인적자원   | 8.27 교사 1인당 초등학교 학생비율(명)                         | 32          | 44            | 20          |
|           | 8.28 교사 1인당 중고등학교 학생비율(명)                        | 25          | 42            | 16          |
|           | 8.25 대학교육이 경제의 경쟁력 증진수요에<br>미흡(서베이 1-7점)         | 2.81        | 47            | 5.51        |
|           | 8.43 차별행위(성별, 가문, 지역)가 사회적<br>동등권 제약(서베이 1-7점)   | 3.96        | 45            | 6.35        |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

경쟁력 연감」, 1999. 4. 21

## WEF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1월말 2월초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으로 유명한 세계 정치지도자, 챔피언 기업인, 사상지도자, 사회리더들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다.
  - 1971년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교수에 의해 설립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진지한 지구차원의 이슈에 관한 토론 모임이다.
  - 웹사이트는 [www.weforum.org](http://www.weforum.org)이다.
- WEF는 1979년에 Klaus Schwab교수의 주창에 의해 국가경쟁력연구 (Competitiveness Report)를 시작해 IMD와 공동으로 세계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발간했다. 그러나 1996년에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견으로 WEF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그리고 IMD는 세계 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서로 독립적으로 발표하며 경쟁력연구 경쟁을 하고 있다.
  - 1996년에는 하버드 대학 국제경제개발연구원 (The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Jeffrey Sachs교수가 자문위원회 공동책임자를 맡아 경쟁력의 개념을 「지속 성장 가능성」으로 압축했다.
  - 1999년 보고서에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Michael E. Porter 교수가 경제개발과 경쟁력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미시경제 이론 논문을 보고서에 발표했다.
- 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는 경쟁력의 개념을 「한 나라가 국민 개인의 GDP생산성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어느 나라가 향후 5년 내지 1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의 각 나라별 경제 경영 여건과 제도적 틀을 경쟁력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한 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는 8개의 분야지표, 개방성(Openness), 정부(Government), 금융(Finance), 기반시설(Infrastructure), 산업기술(Technology), 기업경영(Management), 노동(Labor) 그리고 경제지표(Institutions)로 구성되어 있다.
  - WEF의 경쟁력 평가도 IMD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관련 각국 통계 데이터와 기업인 대상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1999년 보고서에는 세계 59개국의 4000명 기업인들이 서베이에 응했다.
- 1999년 8월 13일에 발표된 WEF의 1999년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9)는 세계 10대 경쟁우위국가로 싱가포르, 미국, 홍콩, 대만, 캐나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를 꼽았다. 1998년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 지난 4년 동안 경쟁력이 크게 상승한 나라는 대만(9위→4위), 캐나다(8위→5위), 영국(15위→8위), 네덜란드(17위→9위), 아일랜드(26위→10위), 핀란드(16위→11위), 아이슬란드(27위→18위), 헝가리(46위→38위)이며
  - 경쟁력이 크게 추락한 나라는 뉴질랜드(3위→13위), 노르웨이(7위→5위), 말레이시아(10위→16위), 덴마크(11위→17위), 칠레(18위→13위→21위), 태국(14위→30위), 인도네시아(30위→37위), 요르단(28위→40위), 이집트(29위→49위)이다.
  - 한국의 WEF 평가 글로벌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1996), 21위(1997), 19위(1998), 22위(1999)이다.

[경쟁력표 11]

# 1999년도 WEF 글로벌 경쟁력 평가 및 지난 4년간 변화 추이

-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세계 59개국 경쟁력순위

자료 :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1999년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1999. 7. 12

| 구분   | 국 가 명     | 1999년<br>WEF지수 | 경쟁력 순위    |           |           |           |
|------|-----------|----------------|-----------|-----------|-----------|-----------|
|      |           |                | 1999년     | 1998년     | 1997년     | 1996년     |
| 최우수  | 싱가폴       | 2.12           | 1         | 1         | 1         | 1         |
|      | 미국        | 1.58           | 2         | 3         | 3         | 4         |
|      | 홍콩        | 1.41           | 3         | 2         | 2         | 2         |
|      | 대만        | 1.38           | 4         | 6         | 8         | 9         |
|      | 캐나다       | 1.33           | 5         | 5         | 4         | 8         |
| 우수   | 스위스       | 1.27           | 6         | 8         | 6         | 6         |
|      | 룩셈부르크     | 1.25           | 7         | 10        | 11        | 5         |
|      | 영국        | 1.17           | 8         | 4         | 7         | 15        |
|      | 네덜란드      | 1.13           | 9         | 7         | 12        | 17        |
|      | 아일랜드      | 1.11           | 10        | 11        | 16        | 26        |
|      | 핀란드       | 1.11           | 11        | 15        | 19        | 16        |
|      | 호주        | 1.04           | 12        | 14        | 17        | 12        |
|      | 뉴질랜드      | 1.01           | 13        | 13        | 5         | 3         |
|      | 일본        | 1.00           | 14        | 12        | 14        | 13        |
|      | 노르웨이      | 0.92           | 15        | 9         | 10        | 7         |
|      | 말레이시아     | 0.86           | 16        | 17        | 9         | 10        |
|      | 덴마크       | 0.85           | 17        | 16        | 20        | 11        |
|      | 아이슬란드     | 0.59           | 18        | 30        | 38        | 27        |
|      | 스웨덴       | 0.58           | 19        | 23        | 22        | 21        |
|      | 오스트리아     | 0.58           | 20        | 20        | 27        | 19        |
| 양호   | 칠레        | 0.57           | 21        | 18        | 13        | 18        |
|      | <b>한국</b> | <b>0.46</b>    | <b>22</b> | <b>19</b> | <b>21</b> | <b>20</b> |
|      | 프랑스       | 0.44           | 23        | 22        | 23        | 23        |
|      | 벨기에       | 0.39           | 24        | 27        | 31        | 25        |
|      | 독일        | 0.39           | 25        | 24        | 25        | 22        |
|      | 스페인       | 0.37           | 26        | 25        | 26        | 32        |
|      | 포르투갈      | 0.16           | 27        | 26        | 30        | 34        |
| 이스라엘 | 0.15      | 28             | 29        | 24        | 24        |           |

| 구분  | 국 가 명    | 1999년<br>WEF지수 | 경쟁력 순위 |       |       |       |
|-----|----------|----------------|--------|-------|-------|-------|
|     |          |                | 1999년  | 1998년 | 1997년 | 1996년 |
| 저 조 | 마우리티우스   | -0.09          | 29     | N/A   | N/A   | N/A   |
|     | 태국       | -0.1           | 30     | 21    | 18    | 14    |
|     | 멕시코      | -0.2           | 31     | 32    | 33    | 33    |
|     | 중국       | -0.27          | 32     | 28    | 29    | 36    |
|     | 필리핀      | -0.31          | 33     | 33    | 34    | 31    |
|     | 코스타리카    | -0.33          | 34     | 34    | 43    | 28    |
|     | 이탈리아     | -0.36          | 35     | 41    | 39    | 41    |
|     | 페루       | -0.37          | 36     | 37    | 40    | 38    |
|     | 인도네시아    | -0.39          | 37     | 31    | 15    | 30    |
|     | 헝가리      | -0.39          | 38     | 43    | 46    | 46    |
|     | 체코공화국    | -0.4           | 39     | 35    | 32    | 35    |
|     | 요르단      | -0.51          | 40     | 34    | 43    | 28    |
|     | 그리스      | -0.6           | 41     | 44    | 48    | 39    |
|     | 아르헨티나    | -0.65          | 42     | 36    | 37    | 37    |
|     | 폴란드      | -0.67          | 43     | 49    | 50    | 44    |
|     | 터어키      | -0.7           | 44     | 40    | 36    | 42    |
|     | 슬로베키아공화국 | -0.72          | 45     | 48    | 35    | N/A   |
|     | 엘살바도르    | -0.72          | 46     | N/A   | N/A   | N/A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0.74          | 47     | 42    | 44    | 43    |
| 베트남 | -0.85    | 48             | 39     | 49    | N/A   |       |
| 이집트 | -0.86    | 49             | 38     | 28    | 29    |       |
| 불 량 | 베네주엘라    | -1.09          | 50     | 45    | 47    | 47    |
|     | 브라질      | -1.2           | 51     | 46    | 42    | 48    |
|     | 인도       | -1.3           | 53     | 50    | 45    | 45    |
|     | 에쿠아도르    | -1.34          | 53     | N/A   | N/A   | N/A   |
|     | 콜롬비아     | -1.48          | 54     | 47    | 41    | 40    |
|     | 볼리비아     | -1.5           | 55     | N/A   | N/A   | N/A   |
|     | 불가리아     | -1.5           | 56     | N/A   | N/A   | N/A   |
|     | 짐바웨      | -1.65          | 57     | 51    | 51    | N/A   |
|     | 우크라이나    | -1.94          | 58     | 53    | 53    | N/A   |
|     | 러시아      | -2.02          | 59     | 52    | 53    | 49    |

자료 :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1999년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1999. 7. 12

## 지속적인 성장으로 떡부터 키우자

- 무조건 부자들을 미워하는 사회적 통념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부자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정치운동에 휘말리면서 사유재산권도 사람과 사안에 따라 정부개입이 정당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공공연히 언론에 보도되고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미국에서도 같은 논쟁이 일고 있다.
  -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에 정부의 도움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의 독점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존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19세기말 대륙횡단 철도건설로 미국에서도 갑부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일반대중은 갑부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라기보다는 거대한 행운을 거머쥐고 거드름을 핀다는 불신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 왔다. 미국사람들은 이들 갑부를 도둑 떼(Robber Barons)라 불렀다.
- 불평등한 사회는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믿음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치가들은 지나친 개인 부의 축적을 막아왔다.
  -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부터 1900년까지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1865년에 2명밖에 안되던 갑부가 22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노동력이 2900만 명이었으니까 백만 명에 0.8명의 갑부가 있는 꼴이다. 1982년에는 그 비율이 0.2명으로 줄었다.
- 누구나 부자·대기업이 되게 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자유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가 아니다. 부자가 생겨날 기회를 넓히는 체제이다.
  - 자유시장경제는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체제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는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중소기업이 빨리 커져서 대기업이 되고, 대기업은 더욱 성공해 그룹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우리가 원하는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개인과 법인에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적인 비밀이 보호되며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주식시장을 통해 공정한 회계기준으로 기업이 공개되며, 투자자가 선택의 권리를 갖고 수요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 자유시장경제체제만이 정부의 독점적 정책개입이나 관료의 자의적 행정개입으로부터 시장참여자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시장경제체제만이 자기의 선택과 책임 하에 개인이 자기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기업윤리로 법인이 자기혁신의 결과로 이윤을 내고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인의 창조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기 위해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경제시스템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기업이든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원한다.